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한 해를 감사히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대 주관 찬양의 가을걷이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시작합니다.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천안 단비교회 쌀을 판매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받고 판매는 16일에 합니다.

11월 5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11월 7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예배인도 - 고린도 속 식사준비 - 빌립보 속

환경부 수련회가 11월 7일(금) 용인 심소재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제7 여선교회가 주관하는 초록장터가 다음 주일(9일)에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예쁜 낙엽을 두 개 주워 하나는 본인이 책갈피로 쓰시고 하나는 누군가에게 선물해보시기 바랍니다.

새교우 소개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과 발은 오곡백과를 내어놓고 산과 들은 제 속에 품었던 고운 빛깔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연만물들과 더불어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채 여물지 못한 삶의 열매를 들고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열매를 주님의 큰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다투며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과 정의로운 예언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와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조병무 송양진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임원민 임수연 오자영 정미경 김지호 박지인 최종원 곽상준 최경미
 황지연 곽경선 권미숙 장원호 박성희 안종일 정현주 김일량 이은옥
 김신옥 김윤수 박상호 김지윤 박영희 방민 배근수 김금순 임승동
 백혜숙

월정헌금:

김명순 김현영 정원석 박준희 이기분 서정순 왕수명 이동천 이정은
 장재영 김재영 전영규 김경수 최철수 곽권희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이소순 김순자 박찬정 최동운 문홍일 구자훈 류건형 이주은

감사헌금:

하현철 최성애 이유일 김미희 박창운 허정윤 우순덕 정현숙 이순정
 왕성환 강순배 최중훈 김금하 김희우 전성오 오래된미래 무명4

녹색꿈헌금 :

김준우 이영순 조항범 백성래 무명2 (누계: 5,216,000원)

	장혜숙	장혜숙	조순덕	연합교회
	노순옥	정경례	김영한	
	임정자	임정자	이재문	
	문영혜	박경선	박정숙	
	안정숙	박애순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김순복	
	박효선	허정윤	김현주	
	최숙화	권미정	권미정	
	이순정	김금순	유영남	
	이형숙	권미숙	이형숙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백혜숙	정옥영	정영선	
	송양진	유경순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미영	
	박혜경	최영혜	조항미	

풀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늦게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행하신 큰일들을 보십시오. 이를 경탄하고 감사함이 찬양의 시작입니다.

아멘. 욕심에 들뜬 마음으로 살아가다 참된 찬양을 잊고 살았음을 반성합니다. 세상의 빠르고 분주한 흐름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호흡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주신 호흡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감사의 찬양	11월 기도의 밤
찬양대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진정숙 집사

11월	영접위원	윤석철 홍순구 박규석 안정숙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정경례(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감사를 통한 부유함

그 동안 제 삶에서 가장 결핍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제 영혼이 이렇게 빈곤한 까닭은 그 동안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 고달팠습니다. 내겐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하는 결핍의식은 저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항상 풍요로워지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항상 빈곤해진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조금 깨닫게 되었으니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닐 때부터 늘 듣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얼마 전,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다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놀라웠습니다. 밥을 먹는 일, 똥을 누는 일, 어금니를 치료하는 일, 시집을 내는 일, 별을 바라보는 일,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일 등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의 전부이자 전체였습니다.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국가와 부모한테서 태어날 수 있었던 일이 감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군 지프차에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눈썹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은 일이 감사했습니다. 어릴 때 냇가로 미역을 감으러 갔다가 형이 내 머리를 물속에 너무 오랫동안 집어넣고 장난치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일이 감사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무전 여행을 갔다가 경주 토함산에서 휘발유통에 불이 붙어 내 몸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별다른 사고 없이 불을 끌 수 있었던 일이 감사했습니다. 군에서 사격훈련을 받을 때 ‘엎드려 쏘’ 자세가 나쁘다고 군화발로 내 엉덩이를 걷어찬 소대장을 향해 그대로 방아쇠를 당겨버리고 싶었던 충동을 참을 수 있었던 일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청계산에 가서 계곡을 흐리는 물소리로 귀를 씻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그 차갑고 맑은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가끔

싸우기도 하는 아내의 발을 처음으로 정성껏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을 때, 안개와 물소리와 엷은 햇살과 새소리를 섞어 만든 향기가 숲 속 어디에 선가 은은히 번져나와 나를 감쌀 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일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쏟아지던 소나기, 베란다 구석에서 울어대던 귀뚜라미, 펄펄 쏟아지던 칠푼, 새로 문을 연 양념통닭집에서 통닭 한 마리를 사들고 집을 향해 걸어갈 때 나를 내려다 보며 웃던 초승달, 그리고 맛있게 통닭을 먹던 가족들.....

작은 일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에서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한번 감사하고 말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볼 때마다 예쁜 구석을 자꾸 찾아낼 수 있듯이 감사 또한 그렇습니다. 내일 짙 소젖을 남겨두면 나중엔 젖이 말라서 나오지 않듯이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해야 할 감사를 내일로 미루면, 내일 짜기 위해 남겨둔 소젖처럼 말라버리고 맙니다.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이 감사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남의 콩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큰일보다는 작은 일에, 평온한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제 인생도 물질을 통하여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통하여 부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차대전 중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종전 직전에 교수형에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감사함을 통하여 부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 물 한 컵을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꽃밭에 핀 감사의 꽃향기가 사랑하는 당신의 가슴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 정호승